

金元代의 小兒科學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學史學教室¹

朴炫局^{1,*} · 金基郁¹ · 金正浩¹

The Medical Study about Pediatrics for Geum(金) and Won(元) Dynasty

Park Hyun-kuk^{1,*} · Kim Ki-wook¹ · Kim Jung-ho¹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Pediatrics in Geumwon(金元) age had formed peculiar children's etiology, Byeonggihak(病機學) and Byeonjeungnon(辨證論) curative system grounded on medical theory in Geumwonsadaega(金元四大家).

Yuwanso(劉完素), who was front-running man in that age, used so many times 'Yanggyeoksan(涼膈散)' or 'Bangpungdongseongsan(防風通聖散)' which have Hanryang(寒涼) disposition for curing children's disease in view of pathology in Yeoldahanso(熱多寒少), which is his special academic thought, after then Judangye(朱丹溪) succeed Yuwanso(劉完素)'s this view of pathology, Yang-eumjahyeol(養陰滋血) developed the one and made it a standing rule to cure children. Also Idongwon(李東垣) grasped that the main cause of disease is starvation because of war. As a result of it, he insisted on theory, internal cause's outbreak of person's illness, Naesangbiwi(內傷脾胃), Baekbyeong-yusaeng(百病由生). In this view of this principle, he assorted and used following medicine 'Seungma(升麻), Siho(柴胡), Hwanggi(黃芪)' as 'Seungbalyanggi(升發陽氣)' method to cure children, and concentrated on children's spleen and stomach cure with this way.

Jangjongjeong(張從政) applied 'Purgation therapy[攻下法]', Hantoha(汗吐下) centered on the theory of exogenous factors[外因說], which explains that children's disease is Sagichimseup(邪氣侵襲), too.

Like this, in Geumwon(金元) age, they had studied very seriously about main cause of children's disease in two part, an internal cause and an external cause. Also, in pathological part they had approached academically 'Hwayeolchibyeong(火熱致病)' and 'Gigiseunggangsillo(氣機乘降失調)' from diverse angles.

Key Words : pediatrics, Geumwonsadaega(金元四大家), Jeungseyeong(曾世榮), Ballonchwiyeong(斑論萃英), Majeungjeonseo(麻證全書)

I. 序論

金元시기에는 빈번한 戰亂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기아 및 전염성 질병이 창궐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은 당시에 성행한 溫燥에 치우친 『和劑局方』의 치료법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 교신저자 : 박현국.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전화 : 054)770-2370. E-mail : parkhg@dongguk.ac.kr.

결과 의학의 기본 이론과 치료법에 대해 보다 깊이 연구하여 당면한 질병치료에 대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학에서 金元四大家라는 학술유파가 형성되었다.

劉完素의 寒涼派, 李東垣의 補土派, 張從政의 攻下派 및 朱丹溪의 滋陰派로 대표되는 金元四大家는 각각의 학술적 기반을 토대로 풍부한 임상경험을 누적하여 의학유파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四大流派的 형성과정 및 학파간의 학술논쟁을 통해 金元시기의 의학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金元시기의 소아과 또한 이와 같은 흐름에 영향을 받아 金元四大家의 의학이론을 기초로 각종 소아질병에 대해 서로 다른 병인, 병기 및 치료원칙을 확립하게 되어 소아과 특유의 辨證論治體系와 病因病機學을 형성하였다. 또한 이전에 비해 훨씬 발전된 醫事制度和 의학적인 소양이 향상된 의가들에 의해 痘疹學을 비롯한 각 방면에서 소아과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논자는 본론을 통하여 金元시기 小兒科의 학술적인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金元代 소아과의 發展概況

1) 醫事制度

金代의 醫學分科는 10개 과로 분류하였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元代는 ‘大方脈, 雜醫科, 小方脈, 風科, 産科, 眼科, 口齒科, 咽喉科, 正骨科, 金瘡腫科, 鍼灸科, 祝由科, 禁科’의 13개 과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소아과에 해당하는 小方脈은 宋代의 명칭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宋代에 이어 소아과는 독립된 과로서 더욱 확고한 제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元·大德9년(1305년)에는 의학을 배우려면 『素問』, 『難經』, 『神農本草經』, 『聖濟總錄』¹⁾을 필수 과목으로 익히게 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醫業을 행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어 의사의 기본적인 소양을 높였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통해 小兒科醫 또한 기본적인 의학지식을 비롯하여 소아의학에 관련된 소양을 보다 확실히 갖출 수 있게 되었다.

2) 소아의 생리·병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金元四大家 가운데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인물인 劉完素는 『顛顛經』에서 제시한 소아 ‘純陽說’에 대해 ‘熱多寒少’의 병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원칙에 따라 소아질병의 치료에 寒涼한 성질의 약물을 운용하였다.

또한 朱丹溪도 劉完素의 이런 병리적 관점을 계승, 발전시켜 16세 이전에는 陽이 가장 왕성하지만 陰은 부족한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생한지 얼마 안된 신생아는 先天의 기운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腎氣가 늘 부족하여 병리적으로 腎虛하기 쉽고, 소아의 빠른 성장발육 과정은 ‘脾主消磨’하는 脾의 왕성한 기능을 항상 필요로 하므로 소아가 평소 병을 많이 앓는다는 것은 ‘脾虛’에 기인된 바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아는 ‘肝氣’가 항상 유역하다. 이는 소아의 빠른 성장발육 현상은 ‘肝木이 萌發’하는 것과 같은 생리적 현상이고, ‘肝旺克脾’하기 때문에 ‘脾虛’하기 쉽다. 소아의 병리적 특징은 肝氣有餘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3) 소아 질병의 病因·病理에 대한 새로운 해석

金元시기의 의가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소아질병의 病因·病機에 접근하였다. 우선 李東垣은 전란으로 인한 기아 등을 병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여 ‘內傷脾胃, 百病由生’이라는 內因 발병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아에 대해 脾胃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張從政은 모든 병의 원인을 外邪의 침범으로 규정하였고 소아질병 역시 이러한 사기가 침입한 것이라는 外因說에 중점을 두었다.

병리적인 면에서도 劉完素는 ‘六氣皆可化火’라는 관점에서 熾盛한 火熱이 소아 병리기전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張從政 역시 이 설을 따랐다.

元代의 유명한 소아 의가인 曾世榮은 『活幼心書』에서 소아질병의 病機에 대해 “蓋其氣也, 四時平和則

1) 『聖濟總錄』 제167-182권의 16권에 해당한다.

身安, 一身壅滯則疾作”²⁾이라 하여 치료할 때에 氣機의 調順을 강조하여 ‘枳殼, 枳實, 人蔘’ 등 理氣調中하는 약물을 위주로 氣機升降이 失調되어 야기된 소아 질병을 치료하였다.

이상과 같이 金元시기는 소아질병의 원인을 內因·外因의 두 방면에 걸쳐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 병리적인 면에서도 ‘火熱致病’이나 ‘氣機升降失調’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소아질병의 인식에 대한 발전

張從政은 소아의 병이 ‘胎生’에서 비롯된 것 외에 ‘驚, 疳, 吐, 瀉’의 네 가지 병을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아질병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네 가지 병은 당시 전란이라는 열악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虛損된 소아 脾胃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危亦林은 家傳된 소아경험방을 編次하여 『世醫得效方·小方科』를 찬하였는데, 그 중 ‘驚, 疳, 積, 熱’을 매우 중시하여 ‘病因·病機·主證’에 따라 이들 네 가지 증을 분류하여 진단과 치료를 논하였다. 元·薩謙齋가 저작한 『瑞竹堂經驗方·小兒門』에 수록된 33종의 처방도 ‘驚, 疳, 疔, 疹’의 치료를 매우 중시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이외에 『活幼口議』에서는 “小兒所患, 腫脹一門, 最爲要急”³⁾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腫脹’이란 소아 水腫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金元 시기에는 ‘驚風, 疳積, 吐瀉’ 등 소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병 이외에도 ‘痘疹’ 등의 질병이 이전에 비해 매우 중시되는 추세였다.

5) 소아 진단학의 발전

金元 이전 南宋시기에는 임상에서 소아 望診法을 중시하였고 이를 천발하여 소아 진단학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金元시기에 이르러서는 望診과 더불어 切診을 중시하는 풍토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소아 진단분야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일례로 曾世榮은 “三歲之上小兒, 以色合

脈, 尤其爲妙”⁴⁾이라 하여 구체적으로 ‘三部五脈說’을 주장하였고, 이후 危亦林 역시 이 설을 계승하였다.

6) 소아 치료학의 발전

金元시기의 소아과 특징 중의 하나가 치료에 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劉完素는 ‘火熱’이 소아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용약할 때 ‘涼膈散’이나 表裏를 함께 풀어주는 ‘防風通聖散’, ‘神芎丸’ 등 寒涼藥을 多用하였다. 이 이후 張從政은 ‘祛邪務盡’의 치료원칙에 따라 ‘汗·吐·下’의 攻下法을 소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용하였다. 易水學派의 李杲는 脾胃를 중시한 그의 치료원칙에 따라 ‘昇發陽氣’하는 ‘升麻, 柴胡, 黃芪’ 등의 약물을 소아 치료에 善用하였다. 滋陰派인 朱丹溪는 ‘陽盛而陰虧’이론을 소아에도 적용시켜 소아는 ‘眞陰不足, 陽熱過旺’하다고 하여 ‘養陰滋血’을 소아 치료의 준칙으로 삼았다.

이 이외에 張元素는 소아의 처방에 ‘五臟’과 ‘四時’를 기준으로 삼아 운용하였고, 曾世榮은 ‘調暢氣機’를 위주로 치료하는 등 金元시기 소아 치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 및 논쟁을 살펴 볼 수 있다.

7) 痘疹學의 발전

(1) 痘疹 치료에 대한 논쟁

痘疹의 ‘寒熱治則’에 대한 논쟁이 ‘劉完素, 張從政, 王好古’ 3자 사이에 치열하게 나타났다. 劉完素는 痘疹 또한 ‘火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熱極’에 이른 것이므로 치료할 때 우선 熱毒을 해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下’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張從政은 劉完素의 火熱說에 따랐지만 痘疹의 원인을 ‘心氣가 獨盛한데 火運이 勝한 시기를 만나 발생한다’⁵⁾고 하여 치료에 ‘寒涼攻下’를 주장하여 劉完素와는 다소 다른 주장을 하였다.

반면에 王好古는 “太陰濕土壅滯, 君相二火之所作也”⁶⁾라 하여 ‘寒涼攻下’하는 치법에 반대하고 ‘溫熱補

2)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21.

3) 曾世榮 著. 活幼口議·卷17·議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5. p.260.

4)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35.

5) 張從政 著. 儒門事親·卷5.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132.

6) 王好古 著. 海藏痰論萃英·海藏老人痰論. 北京. 中華書局. 1985. p.16.

中'하는 치료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2) 痘疹 치료에 대한 3대 유파의 형성

朱丹溪의 '和中, 安表, 解毒'하는 痘疹 치료원칙은 痘疹에 대한 錢乙의 寒涼法이나 陳文中의 溫補法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소아과의 痘疹 치료방면에 一家를 형성하였다. 『丹溪心法附餘』에서 “明醫錢仲陽出, 究其病源, 是熱是燥, 故用辛涼之藥以清熱潤燥. 及陳文中氏出, 觀病源之中有寒濕者, 故用辛溫之劑, 以溫寒散濕. 此二先生兩得之, 後之宗錢氏者, 惟知辛涼之是務, 而寒濕者不宜. 宗陳氏者, 惟以辛溫之是從, 而熱燥者不可 …… 苟能用二子之長而無二家之弊, 斯可也. 丹溪先生曰, 痘瘡看氣血虛, 表裏虛用補, 又曰瘡幹者是火, 宜退火. 瘡濕者是濕, 宜瀉濕. 又曰爐灰白色靜者, 祛者, 作寒看. 勇者, 燥者, 嫩發者作熱看, 先生之言可謂活潑潑地”⁷⁾라 하였다. 이로써 痘疹의 치료에 錢乙, 陳文中, 朱丹溪가 각기 다른 치료 방법을 주장하여 三大流派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金元四大家의 소아과에 대한 공헌

1) 劉完素

劉完素의 소아과에 대한 주장이 그의 여러 의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火熱致病說

‘六氣皆可化火’함으로써 ‘火熱’이 제반 질병을 발생시킨다고 하여 火熱病機 및 火熱病의 증치를 매우 중시한 것이 劉完素 학설사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아에 있어서도 河間은 “大概小兒病者, 純陽, 熱多冷少”⁸⁾라 하여 이를 기초로 “小兒驚風者, 皆由心火暴甚而制金不能平木, 故風火相搏, 而昏冒驚悸, 潮熱, 此證皆謂熱甚而風生”⁹⁾이라 하여 小兒驚風을 ‘熱甚’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驚駭驚愕, 少陰君火也”¹⁰⁾, “急驚瀉痢色多青, 爲熱證明矣”¹¹⁾, “身熱惡寒, 戰慄驚惑, 皆屬熱證, 爲少陰在火”¹²⁾라고 하여 제반 小兒雜病의 원인을 ‘火熱’로 설명하였다.

(2) 瘡疹에 대한 인식

劉河間은 ‘火熱致病’의 관점에서 ‘斑疹’을 ‘胃熱’이나 ‘三焦相火’ 또는 ‘少陰君火’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妄言黑陷爲寒, 及云斑瘡, 終始不可服瀉之藥, 後人因之, 反致熱甚黑陷而死”¹³⁾라 하여 寒을 斑疹의 병인으로 규정한 閻孝忠의說을 강력히 비판하고 “夫斑瘡黑陷者, 無不腹滿喘急而小便赤而不通, 豈能反爲寒邪?”¹⁴⁾라 하여 자신의 설을 더욱 천명하였다.

용약에는 “古人留涼瀉之藥, 通治驚風, 積熱, 設是斑疹, 使少退而稀少出快得愈也. 若用涼膈散, 爲妙耳”¹⁵⁾라고 하여 ‘大黃, 芒硝, 黃芩, 連翹, 竹葉, 薄荷, 甘草, 梔子, 白蜜’ 등 대부분 ‘寒涼直瀉’의 효능을 지닌 약물로 구성된 ‘涼膈散’ 등을 善用하였고, 또한 “傷寒胃熱發斑, 涼膈散加滑石調五苓散, 甚妙”¹⁶⁾라 하였다.

瘡疹의 시초에는 安裏解毒을 위주로 하였다. 安裏解毒이란 오장을 安和하여 오장이 평안하게 되면 氣機升降이 조절되어 瘡疹이 쉽게 치유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劉河間은 “凡瘡疹首尾不可下當先安裏以解毒, 次微發之, 謂能安和五臟, 防風湯是也”¹⁷⁾라 하고 또한 “大抵安裏之藥多, 發表之藥少”¹⁸⁾라 하였다.

藥出版社. 1997. pp.92-93.

10) 劉完素 著. 黃帝素門宣明論方·卷14·小兒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93.

11) 劉完素 著. 黃帝素門宣明論方·卷14·小兒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93.

12) 劉完素 著. 黃帝素門宣明論方·卷14·小兒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93.

13) 劉完素 著. 劉河間傷寒醫鑿·論小兒瘡疹.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313.

14) 劉完素 著. 劉河間傷寒醫鑿·論小兒瘡疹.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313.

15) 劉完素 著. 劉河間傷寒醫鑿·論小兒瘡疹.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313.

16) 劉完素 著. 傷寒標本心法類萃·發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69.

17) 劉完素 著. 素問病機機宜保命集·小兒斑疹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196.

7) 朱震亨 著. 方廣 編註. 丹溪心法附餘·卷23·痘瘡. 서울. 大東文化社. 1989. p.826.

8) 劉完素 著. 黃帝素門宣明論方·卷14·小兒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92.

9) 劉完素 著. 黃帝素門宣明論方·卷14·小兒門. 北京. 中國中醫

또한 용약에 있어서 마땅히 五臟과 四時를 구분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熱則從心, 寒則從腎, 嗽而氣上則爲肺, 風從肝, 瀉從脾, 假令瀉見嗽而氣上, 脾肺病也. 瀉白益黃散合而服之”¹⁹⁾라고 하여 兼症이 다를 경우 마땅히 해당하는 五臟을 구별한 후 용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병하는 계절이 다른 경우에도 “假令春分前, 風寒也. 宜用地黃羌活防風……及春分後, 風熱也, 宜用羌活防風黃芩”²⁰⁾이라 하여 약물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張從政

張從政의 저서인 『儒門事親』에 나타난 소아과 분야의 학술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汗·吐·下’ 三法을 운용

張從政은 諸病의 원인을 모두 邪氣로 규정하여 攻病除邪하는 방법으로 ‘汗·吐·下’법을 운용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儒門事親』의 내용 중 소아과와 관련된 부분도 이러한 치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아 風水證에 대해서 張씨는 “宜出汗……使大服胃風湯而浴之, 浴訖, 以布單重複之, 凡三, 五重, 其汗如水, 腫乃減五分, 隔一, 二日, 乃依前治之, 汗出, 腫減七分, 乃二汗而全滅”²¹⁾이라 하여 汗法을 운용하였고, 또 “發驚涎潮搐搦如拽鋸, 不省人事, 目睛喘急, 將欲死者……可用吐涎散吐之”²²⁾, “餘嘗以牽牛, 大黃, 木通三味末之爲丸, 以治小兒諸病, 皆效”²³⁾라 하여 小兒 驚症과 小兒 雜病 등에 吐法과 下法을 운용하는 등 제반 소아질병에 대해 攻病除邪하는 汗·吐·下法을 원활하게 운용하였다

(2) 소아질병의 원인을 ‘火熱’로 파악하였다.

張從政은 劉河間의 의학사상을 私淑하였으므로 主火論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아질병의 주된 원인을 火熱로 파악하였다. 張氏는 소아질병을 胎生에서 기인된 것 이외에 ‘驚, 疳, 吐, 瀉’ 등 제반 소아질병이 모두 ‘火熱’에 기인된다고 하였다. “驚者, 火乘肝之風木也. 疳者, 熱乘脾之濕土也. 吐者, 火乘胃膈, 甚則上行也. 瀉者, 火乘肝與大腸而瀉者也”²⁴⁾라 하여 瘡疹 등의 소아질병 또한 근본적으로 ‘火邪’가 주된 원인이라 하였다.

(3) 소아질병 치료에 貴賤을 구별

張子和는 소아마다 빈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性情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若富貴之家, 衣食有餘……得縱其欲, 稍不如愿則怒多, 怒多則肝病矣. 夫肝者, 木也, 甚則乘脾矣”²⁵⁾라 하여 부귀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怒氣가 많아져 肝을 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하면 脾가 불리해진다고 하였다. “貧賤之家衣食不足, 生子常堅……因爲貧家之子不得縱其欲, 雖不如意而不敢怒, 怒少則肝病少”²⁶⁾라 하여 빈한한 집안의 경우 뜻대로 되지 않아도 怒함이 적어 肝病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였다. 집안의 富貴貴賤 등 환경을 잘 파악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소아질병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 “薄衣淡食, 少欲寡怒一也. 無財少藥, 其病自痊, 不爲庸醫熱藥所誤, 二也. 在母腹中, 其時作勞, 氣血動用, 形得克實, 三也. 母既作勞, 多易生產, 四也”²⁷⁾라 하여 胎教 및 자식을 양육하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4) 소아질병 치료에 ‘巴豆’ 사용 금지

巴豆는 唐宋이래 소아 急·慢驚風의 치료에 흔히 운용된 약물이지만 張子和는 “蓋巴豆其性燥熱……

18) 劉完素 著. 素問病機機宜保命集·小兒斑疹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196.

19) 劉完素 著. 素問病機機宜保命集·小兒斑疹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197.

20) 劉完素 著. 素問病機機宜保命集·小兒斑疹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197.

21) 張從政 著. 儒門事親·小兒風水.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139.

22) 張從政 著. 儒門事親·小兒風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240-241.

23) 張從政 著. 儒門事親·過暖小兒反害小兒說.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30.

24) 張從政 著. 儒門事親·過暖小兒反害小兒說.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29.

25) 張從政 著. 儒門事親·過暖小兒反害小兒說.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30.

26) 張從政 著. 儒門事親·過暖小兒反害小兒說.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30.

27) 張從政 著. 儒門事親·過暖小兒反害小兒說.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30.

非有暴急之疾，大黃，牽牛，甘遂，芒硝足矣。今人往往以巴豆熱而不畏，以大黃寒而不畏，庸詎知所謂瀉劑者哉？”²⁸⁾라 하여 ‘巴豆’의 성질이 매우 燥熱하고 독성이 강해 소아 치료에 오히려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暴急한 병처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보통의 경우 ‘大黃，牽牛，甘遂，芒硝’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소아 瘡疹에 대한 탁월한 견해

瘡疹은 金元시기에 이르러 이전에 비해 매우 중시되었고 張子和 또한 이에 대해 천발하였다. 瘡疹의 本證 초기에는 ‘發熱惡寒’ 등 傷寒과 유사한 증이 나타나고, 4~5일 후에는 瘡疹이 발생하는데 발생순서는 우선 脇下에서 발생하여 ‘脇肋，後身表，四肢’에 이르게 되며, 6~7일 경에는 전신으로 퍼진다고 하였다. 이 이외에 瘡疹에 대한 病源 및 치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病源

‘心火熱邪’를 瘡疹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張氏의 학술사상은 『素問』, 『難經』 등을 淵源으로 삼아 『儒門事親』에 『黃帝內經』에 이론적 근거를 둔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 瘡疹에 대해서도 “『內經』言，五寅五申歲，多發此病。此少陽相火之歲也。少陽客氣勝，丹慄瘡癩癩之疾生矣。又『內經』云，諸痛癢瘡，皆屬於心火。由是言之，皆明心生”²⁹⁾이라 하여 『黃帝內經』의 이론을 바탕으로 ‘心氣獨盛’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② 治法

‘寒涼攻下’에 주력하였다. 瘡癩가 初發하였을 경우 “宜先解之，有二法。遇元陽炎熱之時，以辛涼解之。遇久寒凝冽之時，以辛溫解之。辛涼之劑者，涼隔通聖散之類是也。辛溫之劑者，升麻葛根之類是也”³⁰⁾라 하여 寒涼法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更宜審察病機，甚者亦不以辛溫”³¹⁾이라 하여 辛溫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以致熱氣轉增，漸成臟毒，下血咬牙，搖搦，爲大熱之症矣”³²⁾, “但發散之後，便以涼隔散加當歸及白虎湯水露煎服之，更甚者，解毒湯，調胃散下之”³³⁾, “稀少者，不服藥而自愈。稠密者，以寒涼藥舍死而救之，十全一二”³⁴⁾라 하여 ‘寒涼攻下’를 원칙으로 삼고 그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천술하였다.

3) 李東垣

李東垣의 소아과에 대한 의학사상은 『蘭室秘藏·小兒門』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脾胃를 중시

脾胃는 ‘後天之本’으로써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嬰兒는 오로지 脾胃의 生化기능에 힘입은 바가 많으므로 脾胃가 병들면 제반 소아질병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소아 脾胃를 중시하는 李東垣의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소아질병을 치료한 예를 살펴보면 우선 急驚風 치료에 “外物驚宜鎮心，以黃連安神丸。若氣動所驚宜寒水石安神丸”³⁵⁾이라 하여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로 발병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치료하였다. 공통적으로 ‘辛溫浮散’하고 ‘寒涼直瀉’하는 치료법을 금지하고 ‘安神’을 위주로 치료하였고, “風木旺必克脾主”³⁶⁾한다는 관점에서 “當先實其脾土，後瀉其木”³⁷⁾하는 黃芪湯(黃芪，人蔘，炙甘草，白芍藥)으로 驚風을 치료하였다. 아울러 “……此三味皆甘溫能補元氣，甘能瀉火……白芍酸寒，寒能瀉火，酸味能瀉肝而大補肺金”³⁸⁾이라 하여 甘溫한 味로 元

28) 張從政 著. 儒門事親·過暖小兒反害小兒說.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30.
29) 張從政 著. 儒門事親·瘡癩癩疹.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132-133.
30) 張從政 著. 儒門事親·小兒瘡癩丹慄癩疹舊蔽記.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19-20.

31) 張從政 著. 儒門事親·瘡癩癩疹.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133.
32) 張從政 著. 儒門事親·瘡癩癩疹.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133.
33) 張從政 著. 儒門事親·火類.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241.
34) 張從政 著. 儒門事親·瘡癩癩疹.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133.
35) 李東垣 著.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治驚論. 臺北. 五洲出版社. 1973. p.241.
36) 李東垣 著.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治驚論. 臺北. 五洲出版社. 1973. p.241.
37) 李東垣 著.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治驚論. 臺北. 五洲出版社. 1973. p.241.

氣를 補하여 脾土를 實하게 하고 酸寒한 芍藥으로 肝木을 瀉하면서 肺金을 補한다고 하여 이러한 관점을 부연 설명하였다.

慢驚에 대해서 李東垣는 또한 “皆由久瀉, 脾胃虛而生也”³⁹⁾라 하여 久瀉 등으로 인해 脾胃가 虛하여 慢驚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當於心經中以甘溫補土之源, 更於脾土中瀉火以甘寒, 更於脾土補金以酸涼”⁴⁰⁾이라 하여 甘溫扶土하는 처방을 주장하였으며, 慢驚에 대한 처방으로 널리 쓰인 기존의 錢氏益黃散은 처방 가운데 丁香은 辛熱하고 靑皮는 瀉肺하기 때문에 이의 운용을 반대하였다.

(2) ‘升發陽氣’를 중시

李東垣은 용약에 ‘升發陽氣’하는 효능을 중시하였다. 『蘭室秘藏·小兒門』에 수록된 12종의 방제들 가운데 ‘升麻, 柴胡, 黃芪’의 3味 중 2味 이상이 함께 사용된 처방이 6종을 차지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小兒寒喘, 腹鳴, 喉鳴’을 치료하는 ‘麻黃柴胡升麻湯’(麻黃, 草豆蔻, 益智仁, 吳茱萸, 厚朴, 當歸, 甘草, 柴胡, 生黃芩, 升麻, 神麴, 蘇木, 全蠍, 紅花)과 ‘腹脹便秘瘦弱’을 치료하는 ‘升陽益血湯’(蠍梢, 神麴, 升麻, 當歸, 厚朴, 桃仁) 및 ‘補陽湯’(黃芪, 橘皮, 葛根, 連翹, 蠍梢, 灸甘草, 升麻, 黃芪, 柴胡, 當歸, 麻黃, 吳茱萸, 生地黄, 地龍), ‘鼠粘子湯’(鼠粘子, 當歸, 灸甘草, 柴胡, 連翹, 黃芪, 黃芩, 地骨皮), ‘消毒救苦散’(防風, 羌活, 麻黃, 升麻, 生地黄, 連翹, 黃蘗, 當歸, 黃連, 川芎, 藥木, 柴胡, 葛根, 酒黃芩, 生黃芩, 蒼朮, 細辛, 生甘草, 白朮, 陳皮, 蘇木, 紅花, 吳茱萸) 등이 모두 陽氣를 升發하는 기능을 중시한 李東垣의 학술사상을 잘 나타내는 처방들이라 할 수 있다.

4) 朱丹溪

朱丹溪의 의서에 散在된 소아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陰血의 調治를 중시

朱丹溪의 학술사상은 『黃帝內經』을 기초로 ‘劉完素, 張從政, 李杲’의 학술사상을 융합하고 자신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결부시켜서 ‘陽常有餘, 陰常不足’이라는 독특한 학술사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養陰’하는 치료방법을 소아과에 운용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16세 이전에는 陽이 가장 盛할 때이고 陽盛하면 오히려 陰虧되기 쉬우므로 소아 調治에 항상 陰血을 滋養하는 것을 중시 하였다.⁴¹⁾

丹溪는 소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童子不衣裘帛, 前哲格言 …… 裘, 下體之服. 帛, 溫軟甚于布也 …… 下體屬陰, 得寒涼則陰易長, 得溫暖則陰暗消 …… 是以下體不與帛絹夾厚溫暖之服, 恐妨陰也”⁴²⁾라고 하여 下體는 陰에 속하며 寒涼하면 陰이 長하고 반대로 溫暖하면 陰이 消하므로 좋은 비단이나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의복으로 하체를 너무 따뜻하게 감싸 입으면 陰을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驚風 치료에도 “急者只用降火下痰養血. 慢者 …… 當養脾 …… 只用朱砂安神丸, 更於血藥中求之 ……”⁴³⁾라 하여 表症의 치료에서도 陰血을 滋養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강조하였다.

(2) 痘疹 치료에 ‘和中, 安表, 解毒’를 중시

痘疹의 치료법으로 兩宋시대의 錢乙은 寒涼한 약으로 痘疹을 치료하였고, 陳文中은 溫熱한 약으로 치료하여 寒·熱派를 형성하였다. 丹溪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방법과는 확연히 다른 ‘和中, 安表, 解毒’하는 처방을 주장함으로써 痘疹 치료에 새로운 학파가 형성되었다.

丹溪는 “痘疹所發, 由裏出表”⁴⁴⁾라 하여 痘疹의 毒이 ‘裏’에서 ‘表’까지 연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和中, 安表, 解毒’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

38) 李東垣 著.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治驚論. 臺北. 五洲出版社. 1973. p.241.

39) 李東垣 著.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小兒門. 臺北. 五洲出版社. 1973. p.242.

40) 李東垣 著.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小兒門. 臺北. 五洲出版社. 1973. p.242.

41) 朱丹溪 著. 格致餘論·慈幼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4. “人生十六以前 …… 惟陰長不足 …… 養之道, 不可不謹”

42) 朱丹溪 著. 格致餘論·慈幼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4-15.

43) 朱丹溪 著. 丹溪心法·小兒.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45.

44) 朱丹溪 著. 丹溪心法·痘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56.

기에서 ‘解毒’이란 ‘涼藥’으로 痘瘡의 독을 淸解시킴으로써 그 毒을 表出시키는 것이고, ‘和中’이란 正氣를 充足시켜 邪氣를 表出시키는 힘을 갖추는 것이며, ‘安表’란 邪氣를 表出하여 通暢시키는 것이다. “溫如當歸, 黃芪, 木香輩. 涼如前胡, 幹葛, 升麻輩, 佐以川芎, 芍藥, 桔梗, 枳殼, 羌活, 木通, 紫草, 甘草之屬, 則可以調適矣”⁴⁵⁾이라 하여 溫涼之劑를 겸하여 痘疹을 다스림으로써 ‘和中, 安表, 解毒’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和中, 安表, 解毒’ 세 가지 방법 중 ‘解毒’이 가장 중요한데, “痘瘡分氣虛血虛用補. 氣虛者, 人參白朮加解毒藥. 血虛者, 四物湯中加解毒藥”⁴⁶⁾이라 하여 ‘氣虛’, ‘血虛’로 나누어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또한 “凡熱不可驟遏, 但輕解之, 若無熱, 則瘡又不能發也”⁴⁷⁾이라 하여 解毒에 大寒한 藥物로 熱毒을 壅遏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3. 醫家와 醫著

1) 張元素

張元素의 소아과에 대한 공헌은 그의 ‘辨證用藥’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張元素는 錢乙의 학술 사상을 계승하여 소아병의 진찰에 望診을 중시하여 面部의 色澤 변화를 기준으로 질병이 속한 臟腑 및 寒熱의 속성 등을 파악하였다. “小兒但見上竄及搖頭咬牙, 即是心熱, 黃連, 甘草. 日連閃, 肝熱, 柴胡, 防風, 甘草. 若左腮紅, 是肝風, 與錢氏瀉青丸. 右腮紅, 肺熱, 與瀉白散. 額上紅者, 是心熱, 與黃連一味. 鼻上紅, 是脾熱, 與錢氏瀉黃散. 頰上紅者, 腎熱, 知母, 黃柏皆二制, 甘草炙”⁴⁸⁾이라 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처방을 설명하였다.

張氏는 “假令春分前, 風寒也. 宜用地黃當歸羌活防風或地黃丸, 瀉青丸, 相間服是也. 春分後, 風熱也, 羌

活防風黃芩或瀉青丸, 用導赤散下之. 立夏之後, 熱也, 宜三黃丸, 導赤散. 夏至之後, 濕熱也, 導赤散, 瀉黃散合而服之, 或黃芩, 甘草, 白朮, 茯苓之類, 爲勝濕去熱也. 立秋之後, 宜益黃散, 陳皮, 厚朴, 人參, 木香之類是也. 秋分後, 瀉白散. 立冬後, 地黃丸主之, 謂腎不受邪也”⁴⁹⁾라 하여 四時에 따른 藥法을 설명하면서 六淫外邪의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처방을 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凡治小兒病, 藥味與大人同, 只劑料差少”⁵⁰⁾라고 하여 소아와 성인이 같은 처방으로 치료할 경우 그 藥量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2) 『活幼心書』

『活幼心書』는 모두 三卷으로 元代 曾世榮이 1294년에 撰하였다. 曾世榮의 字는 德顯으로 소아과에精通하였으며 저서로는 『活幼心書』와 『活幼口議』二十卷이 있다.

『活幼心書』의 卷上 「決證詩賦」에서는 소아과의 주요 병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卷中 「明本論」에서는 소아과 주요 질병의 證治와 曾氏가 임상에서 체득한 것에 대해 논했으며, 卷下 「信效方」에서는 ‘丸·散·膏·丹’ 등의 경험방 230종을 수록하였다. 『活幼心書』에 나타난 曾世榮의 학술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望診과 切診을 병용

“多在懷抱, 手無垢膩, 則指白皮嫩, 其紋顯而易見”⁵¹⁾이라 하여 曾氏는 3세 미만의 소아를 진찰할 때는 指紋을 중시하였다. “常貪戲耍, 手弄泥水, 則指粗皮厚, 其紋隱而難辨 …… 參諸面部, 是爲捷要”⁵²⁾라 하여 3세~5세 이후에는 面部의 望診을 위주로 진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五色主病」에서는 “積黃青則是驚風, 熱赤傷寒紫淡紅, 黑痛白爲虛冷嗽, 更須隨部用神工”⁵³⁾이라 하여 曾氏 자신이 경험하여 깨달은

45) 朱丹溪 著. 丹溪心法·痘瘡.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58.

46) 朱丹溪 著. 丹溪心法·痘瘡.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56.

47) 朱丹溪 著. 丹溪心法·痘瘡.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56.

48) 張元素 著. 醫學啓源·小兒.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80.

49) 李東垣 著. 潔古家珍·小兒四時用藥. 北京. 中華書局. 1991.

50) 張元素 著. 醫學啓源·小兒.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80.

51) 曾世榮 著. 活幼心書(上).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7.

52)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30.

53)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바를 설명하였다.

다만 望診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叫怒而容變，則倉卒難定”⁵⁴⁾하여 소아 진단의 어려움을 말하고 “三歲之上小兒，以色合脈，尤其爲妙”⁵⁵⁾라 하여 3세 이상의 소아는 望診과 切診을 병용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러한 脈診의 운용에 대해서 “周歲以前，氣血未定，脈難依。周歲以後，氣血和平，始可診脈”⁵⁶⁾이라고 하고, 脈을 잡는 방법으로 “二歲以前，只依一指按關部取法爲率”⁵⁷⁾, “至四，五歲餘，欲密下三指按三部”⁵⁸⁾라고 하였으며 소아의 정상맥은 “一息六至爲平”⁵⁹⁾이고, 病脈은 “不和氣主按如弦，浮洪風熱數驚候，虛冷沈遲實積堅，指滯脾經時緩應，過猶不及亂難痊”⁶⁰⁾이라 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2) 五苓散을 善用

曾世榮은 五苓散 활용에 능통하여 소아질병에 광범위하게 운용하였다. 『活幼心書』 中卷 「明本論」에 수록된 41종의 병증 중 五苓散을 사용하여 치료한 것이 무려 15종에 달한다. 이를 살펴보면 “內有澤瀉導小便，心與小腸爲表裏，小腸流利，心氣得通，其驚自滅。內有桂，木得桂則枯，是以有抑肝之氣，其風自停，況佐以辰砂，能安神魂，兩得其宜”⁶¹⁾이라 하여 五苓散의 효능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夜啼를 치료하는데 ‘五苓散加黃芩，甘草’로 涼心安神시키고, 急驚에 ‘五苓散加辰砂，薄荷’하여 疏滲肝經하고 魂退熱鎮驚시키는

등 ‘臍風撮口，咳嗽，霍亂，積吐，冷痢，驚癱鶴膝，癰閉，腹痛，諸汗，黃病，日疾’ 등 제반 소아병증 치료에 五苓散을 능숙하게 운용하여 치료의 묘를 살린 것을 볼 수 있다.

(3) 氣機의 升降을 중시

曾氏는 “蓋其氣也，四時平和則身安，一身壅滯則疾作”⁶²⁾이라 하여 氣機升降의 失調를 소아 발병의 중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소아 질병치료를 논치하는데 있어서 氣機를 순조롭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경우 寬氣飲(人參，甘草，枳實，枳殼)을 선용하였다. 예를 들어 ‘搐’증을 치료할 때 ‘搐’은 ‘氣’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治搐之法，貴以寬氣爲妙，氣順則搐停”⁶³⁾이라 하였고, 처방으로는 ‘枳實’，‘枳殼’ 등 調氣寬中을 위주로 하는 약물로 구성된 寬氣飲을 주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六畜癩’이나 ‘食癩’ 등의 증상 역시 ‘寬中調氣，去風痰’을 위주로 하였고, 痘瘡치료에 역시 “痘瘡氣均則出快”⁶⁴⁾라 하여 氣機의 승강작용을 중시하였다.

(4) 四證八候

曾氏는 “四證者，驚風痰熱是也。八候者，搐，搦，掣，顛，反，引，竄，視是也”⁶⁵⁾라 하여 四證과 八候를 열거하고 “搐者，兩手伸縮。搦者，十指開闔……四證已備，八候生焉。四證既無，八候安有?”⁶⁶⁾라 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驚風 치료에 “治驚不若補腎”⁶⁷⁾이라 하고 “補腎則水升火降，邪熱無侵，雖有肝風，不生驚駭”⁶⁸⁾, “當于申時服補腎地黃丸一服，或

p.30.

54)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35.

55)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35.

56) 曾世榮 著. 活幼心書(上).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11.

57) 曾世榮 著. 活幼心書(上).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12.

58) 曾世榮 著. 活幼心書(上).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12.

59) 曾世榮 著. 活幼心書(上).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11.

60) 曾世榮 著. 活幼心書(上).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12.

61)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61.

62)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23.

63)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21.

64)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21.

65)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23.

66)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22.

67)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23.

68)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21.

琥珀抱龍丸。用申時者，蓋水生於申，佐之以藥，則腎水得平，心火不炎自無驚矣”⁶⁹⁾라 하여 驚風 치료에 補腎을 중시하고 그 처방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

3) 『活幼口議』

1294년에 성서된 『活幼口議』 또한 소아과에 관한 曾世榮의 주요 저작으로 소아의 생리, 병리, 色脈證治 등을 비롯한 曾氏의 임상경험을 상세히 수록한 책이다. 『活幼口議』의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三部五脈의 진단

曾氏는 6卷 「三部五脈」에서 “小兒三部，面看氣色爲一部，虎口紋脈爲二部，寸口一指脈三部。五脈者，上按額前，下診太沖，並前三部，謂之五脈”⁷⁰⁾이라 하여 曾氏의 독특한 진단법을 설명하였다. 이는 曾氏의 풍부한 임상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이전부터 계승되어 온 面色에 대한 望診이나 虎口指紋法과 같은 소아 진단법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외에 “凡是嬰兒，先以視之爲上，聽聲爲次，察脈又爲次”⁷¹⁾라 하여 소아 진단법의 운용에 ‘先後’ 및 ‘主次’의 구분이 필요하며, ‘望診’이 가장 우선이고 ‘聞診’과 ‘切診’이 그 다음이라 하였다.

(2) 哺乳와 臍를 중시

여기에서는 ‘乳哺有時’를 강조하여 “物萌失之灌溉，長必焦萎，兒誕違之乳哺，壯必怯弱……凡兒在胎，則和氣養之，食不及乳，乳飽即不食……是故乳不可失時，食不可不節，乳失時，兒不病自衰，食不節，兒無疾自怯……”⁷²⁾이라 하였으며 또한 “乳者，壯其肌膚，食者，厚其腸胃……雖食無乳，禍害生焉”⁷³⁾이라고

하여 乳와 食의 기능을 구별하여 설명하면서 乳는 肌膚를 튼튼하게 하고, 食은 腸胃를 건실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이외에 “臍者，受質之根也，爲人之本也，形體之基地，元命之壽也”⁷⁴⁾라 하여 臍를 매우 중시하여 설명하였다.

4) 『斑論萃英』

李芻의 제자인 王好古가 1308년 이전에 편찬한 책으로 全書는 1권이며 ‘瘡疹標本，活古老人斑論，海藏老人斑論，未顯斑證所用之藥，已顯斑證所用之藥，瘡疹重候’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명은 비록 ‘斑論’이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痘疹’에 관한 저작으로 痘疹에 대한 病因, 病機, 診斷, 治則, 方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총결하면 다음과 같다.

(1) 病因

斑疹의 주된 원인은 胎毒이라 하였고, 또한 “皆太陰濕土壅滯，君相二火之所作也”⁷⁵⁾라 하여 脾臟의 異常도 斑疹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2) 病機

斑疹은 火熱의 병으로써 “勿以作寒證，當識用抱龍丸，即知斑疹多熱也”⁷⁶⁾라 하였다.

(3) 鑑別

斑과 疹은 서로 다른 것으로써 “瘡發癩腫於外者，屬少陽三焦相火也，謂之斑。小紅點行皮膚之中，不出者，屬少陽君火也，謂之疹”⁷⁷⁾이라 하여 斑과 疹의 外形과 속성을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4) 治則

“外者外治，內者內治，中外皆知，其斑自出”⁷⁸⁾，“至

69) 曾世榮 著. 活幼心書(中).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21.
70) 曾世榮 著. 活幼口議·卷6·三部五脈.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5. p.87.
71) 曾世榮 著. 活幼口議·卷1·參詳.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5. p.8.
72) 曾世榮 著. 活幼口議·卷5·議乳失時哺不節.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5. pp.79-80.
73) 曾世榮 著. 活幼口議·卷5·議乳失時哺不節.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5. p.80.

74) 曾世榮 著. 活幼口議·卷8·臍中受熱.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5. p.126.
75) 王好古 著. 海藏瘋論萃英·海藏老人斑論. 北京. 中華書局. 1985. p.16.
76) 王好古 著. 海藏瘋論萃英·瘡疹標本. 北京. 中華書局. 1985. p.2.
77) 王好古 著. 海藏瘋論萃英·海藏老人斑論. 北京. 中華書局. 1985. pp.13-14.
78) 王好古 著. 海藏瘋論萃英·海藏老人斑論. 北京. 中華書局.

于惡寒者發之, 表大熱者奪之, 渴者清之, 大使秘結者下之, 小便不通者利之, 驚者安之, 泄者分之”⁷⁹⁾라고 하여 전체적인 治則을 논하였는데 그 중 和法이 주된 치료법임을 강조하였다.

(5) 用藥

斑證의 치료에 ‘經, 氣, 血’을 구분하여 용약해야 하므로 “隨經用藥, 不可缺也”, “欲知其經, 當以脈別之”라고 하여 脈에 따라 經을 구분해야 하며 또한 氣血을 나누어 치료를 논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活血散은 太陽藥, 甘桔湯은 少陰藥, 消毒散은 太陽藥, 白虎湯은 陽明藥, 連翹散은 少陽藥, 升麻葛根湯은 太陽陽明之劑, 鼠粘子湯은 太陽少陽之劑, 生犀湯은 少陽陽明之劑, 石膏寒水石은 氣劑, 甘露飲子是 血劑’라고 하였다.⁸⁰⁾

5) 『世醫得效方』

1337년 元의 危亦林이 撰한 것으로서 全書는 19권이다. 그 중 11권, 12권의 「小方科」에 나타난 소아과와 관련된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驚·疳·積·熱’을 중시

危亦林은 本書에서 제반 소아과 질병에 대해 언급했고, 그 중에서도 ‘驚·疳·積·熱’ 4증을 더욱 중시하여 그에 대한 병인, 병기, 주증, 진단, 치료 등에 대해 상세히 논하였다.

예를 들어 “急驚之候, 通關截風, 定搐去痰, 其熱尚作, 則當下之. 一泄之後, 又急須和胃鎮心, 不可過用寒涼等劑”⁸¹⁾, “慢驚之候, 宜于生胃氣藥, 和以截風定搐, 不可太燥”⁸²⁾라 하여 急驚과 慢驚을 구분하여 그 치료방법을 설명하였고, 脾風에 대해서는 “脾風, 若逐風則無風可逐, 若療驚則無驚可療, 但脾間痰涎虛熱往

來……世所謂慢風難療者, 慢脾風是也”⁸³⁾라 하였고, 疳證에 대해서는 “兒二十歲以下爲疳, 二十歲以上爲癆”⁸⁴⁾라고 하고 ‘肝·心·脾·肺·腎’ 五臟의 五疳 및 ‘脊疳, 蛔疳, 乾疳, 疳渴, 疳利, 疳瀉, 腫脹, 疳勞, 無辜疳, 丁奚, 哺露’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2) ‘望·聞·切診’을 중시

危氏는 “臟腑脆嫩, 皮骨軟弱, 血氣未盛, 經絡如絲, 脈息如毫, 易虛易實, 易冷易熱, 兼之口不能言, 手不能指, 疾痛之莫知”⁸⁵⁾라 하여 소아진단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非觀形, 察色, 聽聲, 切脈, 究其病源, 詳其陰陽表裏虛實, 而能療之者, 蓋亦寡矣……治之之道, 當觀形, 察色, 聽聲, 切脈”⁸⁶⁾이라 하여 望診, 聞診, 切診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觀形則先觀其眼……次當看紋”⁸⁷⁾, “察色者若面目俱青, 眼睛竄視, 此爲驚邪入肝”⁸⁸⁾, “若夫聽聲則睡中驚啼, 聲浮者易治, 聲沈者難”⁸⁹⁾, “至于切脈, 虛則細而遲, 實則洪而數”⁹⁰⁾이라고 하여 ‘觀形, 察色, 聽聲, 切脈’하는 진단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6) 『田氏保嬰集』

一名 『保嬰集』이라고도 하며 정확한 작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元의 杜思敬이 그의 저서인 『濟生拔萃』에 수록하여 14세기경에 간행되었다. 『保嬰集』은 총 1권으로 그 내용을 보면 ‘兒科病證與治法’, ‘論小兒病證’, ‘方劑與灸治之法’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病證治法에서는 ‘月裏生赤, 月裏生嘔, 月裏生黃’과 같

1985. p.16.
79) 王好古 著. 海藏輯論萃英·海藏老人類論. 北京, 中華書局. 1985. p.16.
80) 王好古 著. 海藏輯論萃英·瘡疹標本. 北京, 中華書局. 1985. pp.2-15.
81)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卷11·活幼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532.
82)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卷11·活幼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532.

83)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卷11·活幼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532.
84)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卷11·活幼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533.
85)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卷11·活幼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535.
86)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卷11·活幼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531.
87)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卷11·活幼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531.
88)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卷11·活幼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531.
89)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卷11·活幼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p.531-532.
90)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卷11·活幼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532.

은 初生兒 질병과 ‘春日病溫, 夏日吐瀉, 秋日泄痢, 冬日咳嗽’와 ‘五臟病’ 및 ‘急·慢驚風’과 같이 四時에 따라 흔히 나타나는 병에 대해 설명했고, 다음으로 ‘夜啼, 馬脾風, 弄舌, 客忤’ 등을 비롯한 22종의 소아 雜病이 기재되어 있다. 각 병증마다 증상의 요점을 설명한 후 1~2개 유효한 방제를 열거하여 임상에 편리하게 운용하도록 하였다.

『辨小兒病證』에서는 “昏睡善噎噎者, 將發瘡疹也”⁹¹⁾, “呵欠而面黃者, 脾虛驚也”⁹²⁾라 한 것처럼 소아 雜病에 대한 감별진단을 설명하였고, 『方劑與灸治之法』에서는 간단하게 구성된 처방이지만 신속한 효과를 발휘하는 44종 방제 및灸治法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襁褓小兒, 大便不通, 小便澀滯, 並驚熱痰實, 欲得瀉動者’를 치료하는데 ‘郁李仁, 大黃, 滑石’의 3味만으로 구성된 郁李丸을 사용하고, ‘小兒暴喘, 胸高氣急, 兩脅扇動, 痰鳴潮塞’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속성 馬脾風 치료에 ‘黑·白牽牛, 大黃, 檳榔’ 4味로 구성된 牛黃奪命散을 쓰며, 嘔吐가 그치지 않는 증상에는 ‘朱砂, 沈香, 藿香, 丁香, 滑石’ 5味로 구성된 朱沈煎을 사용하였다. 이 이외에 ‘灸慢驚及臍風撮口, 灸小兒癲癩風癩驚癩, 灸疳瘦法, 灸馬脾風’ 등 소아질병에 대한灸治法을 상세히 수록하여 임상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⁹³⁾

7) 『麻證全書』

元の 滑伯仁이 1364년에撰한 것으로 일명 『麻證新書』라고도 하며 소아의 麻疹에 관한 최초의 전문 의서라 할 수 있다. 총 4권으로 구성되어 麻疹의 ‘病因, 病狀, 用藥’ 등에 대해 천발했고 무려 351개의 麻疹에 관한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麻證之名, 各方不同, 在京師呼爲瘟證, 河南呼爲痧瘡, 山西陝西呼爲瘡瘡, 山東福建兩廣雲貴四川俱呼爲疹子, 江南呼爲痧疹, 浙江呼爲瘡子, 湖廣江西俱呼爲齙子, 聞人氏呼膚證, 雖四方之命名有別, 其

實皆一, 麻也”⁹⁴⁾라 하여 각 지방마다 다르게 알려진 麻疹의 명칭을 통일했으며 麻疹의 病因에 대해 “麻爲火毒, 出於肺胃”⁹⁵⁾라 하여 그 성질 및 病位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火毒이 病因이라는 관점을 기초로 清涼을 위주로 하는 치료법을 주장하였다. 또 “初潮宜宣發, 已潮宜解毒, 將收宜養陰, 收後宜安胃”⁹⁶⁾라고 하여 병세에 따라 治則을 설명하여 “故用藥之法, 總不外透表宣毒, 和血養陰安胃之劑”⁹⁷⁾라 총결하였다.

아울러 “升麻, 柴胡, 桔梗, 白芍, 甘草, 升提凝澀各物, 始終禁忌”⁹⁸⁾라 하여 禁忌藥物을 말하고, 麻證에는 “脾胃受傷敗還 …… 當審其輕重而用補中之法”⁹⁹⁾이라고 치료원칙을 설명하면서 ‘人參, 白朮, 白茯苓, 砂仁, 藿香, 陳皮, 薏仁, 蓮肉’ 등의 약물을 응용하고 보조요법으로 “當佐以清涼之藥, 加川連, 枯黃芩, 俱微妙而用之”¹⁰⁰⁾할 것을 주장하였다.

麻證의 초기 증후에 대해서는 “麻證初起, 必發咳嗽, 揮身脹痛, 有似傷寒之候, 惟乾咳連聲, 目亦多淚, 嘔惡便糖, 確爲麻證之驗”¹⁰¹⁾이라 하였고, 麻疹이 表出된 후에는 “而麻于耳後項上腰腿先現, 然後遍及手足底爲齊, 總以頭面更多者爲佳”¹⁰²⁾라 하여 그 증상과 그 예후를 설명하였다. 麻疹의 형상과 색깔에 관해서는 “麻頂尖長形小而勻者吉也”¹⁰³⁾, “麻疹之色, 最喜通紅”¹⁰⁴⁾이라 하였다.

91) 撰人未詳. 田氏保嬰集·辨小兒病證. 北京. 中華書局. 1985. p.9.
92) 撰人未詳. 田氏保嬰集·辨小兒病證. 北京. 中華書局. 1985. p.9.
93) 撰人未詳. 田氏保嬰集·方劑與灸治之法. 北京. 中華書局. 1985. pp.10-24.

94)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4.
95)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男女大小治法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4.
96)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麻證總結.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5.
97)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麻證總結.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5.
98)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補中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5.
99)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出不快發不出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5.
100)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出不快發不出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5.
101)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出不快發不出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5.
102)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麻色分治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5.
103)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一齊涌出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5.
104)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潛生原論. 北

III. 結 論

金元시기 소아과 특징의 하나가 치료에 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劉完素의 寒涼派, 李東垣의 補土派, 張從政의 攻下派 및 朱丹溪의 滋陰派로 대표되는 金元四大家는 각자의 학술적 기반을 토대로 풍부한 임상경험을 누적하여 성과를 형성하였다. 小兒科 또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金元四大家의 의학이론을 기초로 각종 소아질병에 대해 병인, 병기 및 치료 원칙을 확립하게 됨으로써 小兒科 특유의 辨證論治體系 및 病因·病機學을 형성하였다.

劉完素는 『顛顛經』에서 제시한 소아 '純陽說'에 대해 원래의 純陽說이 지닌 소아 특유의 생리적인 특징을 劉完素의 학술사상인 '熱多寒少'의 병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소아병의 치료에 '涼膈散'이나 表裏를 함께 풀어주는 '防風通聖散, 神芍丸' 등 寒涼한 약을 多用하였다.

朱丹溪는 劉完素의 관점을 계승, 발전시켜 신생아는 先天의 기운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腎氣가 늘 부족하여 병리적으로 腎虛하기 쉽고, 소아의 빠른 성장발육은 '脾主消磨'하는 脾의 왕성한 기능이 필요하므로 소아가 평소 병을 자주 앓는 것은 '脾虛'에 기인된 바가 많다고 하였다. '陽盛而陰虧'의 治則을 소아에도 적용시켰고 소아를 '眞陰不足, 陽熱過旺'하다고 파악하여 '養陰滋血'을 소아 치료의 준칙으로 삼았다.

李東垣은 전란으로 인한 饑饉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여 '內傷脾胃, 百病由生'한다는 內因 발병설을 주장하고 이 원칙에 따라 '昇發陽氣'하는 '升麻, 柴胡, 黃芪' 등을 소아 치료에 善用하여 脾胃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張從政은 모든 病의 원인을 外邪의 침범으로 규정하여 소아병 역시 邪氣가 侵襲하는 外因說에 중점을 두었다. 병리적으로 劉完素는 '六氣皆可化火'한다는 관점에서 熾盛한 火熱이 소아 병리기전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張從政 역시 이 설을 따르는 한편 祛邪務盡의 원칙에 따라 '汗·吐·下' 攻下法을 小兒科

에서도 운용하였다. 金元시기 의가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소아질병의 病因·病機에 접근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 張元素는 소아에 대한 처방을 '五臟'과 '四時'를 기준하여 운용하였다. 그리고 曾世榮은 『活幼心書』에서 치료에 氣機의 調順을 강조하여 '枳殼, 枳實, 人參' 등 理氣·調中하는 약물을 위주로 氣機升降이 실조되어 야기된 소아병에 대처하였으며, 또한 그의 『活幼口議』에는 소아의 생리, 병리, 色脈證治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고, 특히 三部五脈의 진단과 哺乳와 臍를 중시를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王好古가 편찬한 『斑論萃英』에는 痘疹에 대한 病因, 病機, 診斷, 治則, 用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危亦林이 편찬한 『世醫得效方』에는 '驚·疳·積·熱'에 관한 병인, 병기, 주증, 진단, 치료에 관하여 논하였고, 진단에 있어 '觀形, 察色, 聽聲, 切脈'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滑伯仁은 『麻證全書』에서 小兒 麻疹에 관하여 '病因, 病狀, 用藥' 등에 대해 천발했고, 무려 351개의 麻疹에 관한 처방이 기재되어 있는 최초의 전문의서이다.

이상과 같이 金元시기는 소아병의 원인을 內因·外因 두 방면에 따라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한 병리적으로도 '火熱致病'이나 '氣機乘降失調'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단행본>

1. 吳少禎 編著. 中國兒科醫學史·麻證全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4, 155.
2. 王好古 著. 海藏癩論萃英. 北京. 中華書局. 1985. p.2, 16. pp.2-15, 13-14.
3. 危亦林 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531. 532, 533, 535.
4. 劉完素 著. 傷寒標本心法類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69.
5. 劉完素 著. 素問病機機宜保命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196, 197.

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5.

6. 劉完素 著. 劉河間傷寒醫鑿.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313.
7. 劉完素 著. 黃帝素問宣明論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92, 93.
8. 李東垣 著. 潔古家珍. 北京. 中華書局. 1991. p.241, 242.
9. 李東垣 著.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 臺北. 五洲出版社. 1973. p.241, 242.
10. 張元素 著. 醫學啓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80.
11. 張從政 著. 儒門事親.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29, 30, 132, 133, 139, 241. pp.19-20, 132-133, 240-241.
12. 朱丹溪 著. 格致餘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4. pp.14-15.
13. 朱丹溪 著. 丹溪心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45, 456, 458.
14. 朱震亨 著. 方廣 編註.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826.
15. 曾世榮 著. 活幼口議.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5. p.8, 80, 87, 126, 260. pp.79-80.
16. 曾世榮 著. 活幼心書.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7, 11, 12, 21, 22, 23, 30, 35, 61.
17. 撰人未詳 著. 田氏保嬰集. 北京. 中華書局. 1985. p.9. pp.10-24.